

사계절 무한대의 활기찬인 스포츠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믹스 컨트리 클럽

- 광주·동광동 IC 구간 광복 동원드 산동 (명절 특별행) IC 영수증 프로그램 개시
- 무전시 9월 이후 특별요청정선제 실시
- 예약 : www.hpdyneasy.co.kr 0801-320-7700

아시아 프로야구 왕중왕 가리자



‘아시아 최강 야구단은 누구?’ 아시아 야구 왕중왕을 가리는 2008 아시아 시리즈가 13~16일 도쿄돔에서 막이 열린다. 아시아 시리즈는 한·중·일·대만 등 4개국 야구리그 우승팀이 단판 대결을 벌여 최강팀을 가리는 이벤트.

2005년 시작해 올해 4회를 맞는 이 대회는 ‘코나미컵’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올해부터 일본 게임제조업체인 코나미사가 후원을 중단해 ‘아시아시리즈’로 호칭이 통일됐다.

지난해까지 국가대표팀이 출전한 중국도 올해부터 자국 세이프로 리그 우승팀이 참가하며 대회 면모를 제대로 갖췄다. 총상금 1억엔 중 우승팀 상금은 5천만엔(약 6억7천만원).

올해는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한 SK 와이번스와 일본시리즈 우승팀 세이부 라이온스, 대만리그 정상에 오른 통이 라이온스, 중국 텐진 라이온스가 참가한다.

한국은 2005년과 2006년 삼성 라이온즈가 2년 연속 출전했지만 각각 2위와 3위에 그쳤고 지바 롯데 말린스와 니혼햄 파이터스가 안방에서 우승잔치를 벌였다.

참가팀이 대회에 그다지 의의를 두지 않는 듯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예상대로 일본이 연속 우승하면서 대회를 만든 취지가 무

韓·中·日·대만 리그 우승팀 대결 13일부터 4일동안 도쿄돔서 열려

날짜	시간	대진
11월 13일(목)	12:00	대만(통이) : 중국(텐진)
11월 13일(목)	18:00	한국(SK) : 일본(세이부)
11월 14일(금)	12:00	중국(텐진) : 한국(SK)
11월 14일(금)	18:00	일본(세이부) : 대만(통이)
11월 15일(토)	12:00	중국(텐진) : 일본(세이부)
11월 15일(토)	18:00	대만(통이) : 한국(SK)
11월 16일(일)	14:00	예선리그 1위 : 예선리그 2위

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변화의 조짐은 지난해 생겨났다. 제일교 포 출신의 김성근 감독이 이끈 SK는 예선 1차전에서 김광현을 선발로 내세워 일본 대표 주니치 드래곤스를 6-3으로 격파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비록 예선 1, 2위 자격으로 다시 맞붙은 주니치와 결승전에서 5-6 역전패를 당해 우승 영예는 일본에 내줬지만 SK의 도전은 아시아 야구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하지만 SK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2008년 최대 목표는 아시아시리즈 우승”

이라며 칼을 갈아왔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두산 베어스를 누르고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지은 뒤 지난 4일부터 연습에 들어갔고, 전력분석팀 3명을 일본에 보내 세이부와 요미우리간 일본시리즈를 정밀 관찰해왔다. SK는 11일 오전 일본으로 떠나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가며 13일 오후 6시 세이부와 첫 대결을 벌인다.

SK는 14일 낮 12시 텐진, 15일 오후 6시 통이와 대결을 거쳐 2위 이내에 들면 16일 오후 2시 결승전을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SK 김광현 투수

“세이부 사냥 내 손으로”

‘일본 킬러’ SK 김광현

1차전 선발 출격 채비

“유종의 미 거두겠다”

“아시아시리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

2008년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상을 거머쥔 김광현(20·SK)이 13~16일 도쿄돔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리즈에 세이부 라이온스 사냥꾼으로 나선다.

올해 다승왕(16승)과 탈삼진왕(150개)을 휩쓸며 SK 에이스 자리를 굳힌 프로 2년차 김광현은 자타가 인정하는 ‘일본 킬러’로 통한다.

지난해 정규리그 3승7패에 그친 김광현은 일본시리즈 우승팀 주니치 드래곤스와 아시아시리즈 1차전에 선발로 나서 6과 3분의 2이닝을 1점으로 막아내며 6-3 승리를 이끌었다.

침착한 인색한 오치아이 히로미쓰 주니치 감독이 “김광현이 이대로 성장하면 한국 국가대표팀에 들어갈 만한 재목”이라고 치켜세웠을 만큼 인상적인 호투였다.

베이징올림픽에선 두 번이나 일본 타선을 침묵에 빠트렸다.

대회 전부터 일본전 선발을 자원한 김광현은 8월16일 일본과 본선 풀리그 4차전

선발로 등판해 5와 3분의 1이닝을 3안타 1실점으로 막고 5-3 승리의 초석을 놓았고, 22일 일본과 준결승전에선 8이닝, 2실점(1자책점)하며 승리투수가 됐다.

일본 타자들은 김광현을 충분히 분석하고도 시속 140km의 빠른 공과 날카로운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는 그에게 맥을 추지 못했다.

두산 베어스와 한국시리즈에선 1차전과 5차전 선발로 나와 12이닝 3실점(2자책)의 쾌투로 시리즈 2연패를 확정하며 에이스 역할을 100% 완수했고, MVP까지 옮겨줘었다.

정규리그 직후부터 다소 컨디션 난조를 보이고 있지만 어린 나이치고는 국제경기 경험이 풍부하다는 건 전금을 주고도 얻기 어려운 김광현만의 장점이다.

하지만 2008 아시아시리즈 우승을 목표로 내건 김성근 감독은 젊은 에이스의 몸상태를 걱정하고 있다.

김 감독은 “한국시리즈가 끝난 뒤 연습 때 김광현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SK의 에이스로 우뚝 선 김광현은 세이부와 예선 1차전보다는 우승컵을 다루는 결승전에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신에게 풀리는 기대감을 잘 아는 김광현도 “아시아시리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엽 기용 내 잘못 챔피언 패인 중 하나”

요미우리 하라 감독 인터뷰

일본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하라 다쓰노리 감독이 챔피언 결정전인 일본시리즈에서 패한 원인으로 이승엽(32·사진)의 부진을 거론하면서도 그를 기용한 건 자신의 실수라고 밝혔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히치’와 ‘산케이스포츠’는 지난 9일 일본시리즈 7차전에서 2-3으로 패해 우승컵을 세이부에 내준 하라 감독의 인터뷰를 10일 간략하게 전했다.

하라 감독은 이번 시리즈에서 부족했던 부분으로 “좀 더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기용한 게 당연했다. 내 실수이고 패인 중 하나”라며 부진한 이승엽을 6.7차전에 연속 기용한 것을 언급했다.

4차전까지 12타수1안타, 삼진 8개로 저조했던 이승엽은 5차전에서 지명타자 아베 신노스케에게 5번 타자 자리를 내주고 벤치에 머물렀다.

하라 감독은 5차전에서 승리한 뒤 8~9일 홈구장 도쿄돔에서 열린 6~7차전에서 “요미우리다운 야구로 우승을 결정짓겠다”면서 중심타자 이승엽을 5번, 6번 타수에 집어넣는 ‘믿음의 야구’를 펼쳤으나 이승엽은 6타수1안타, 삼진 4개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다.

최악의 부진에 빠진 이승엽의 선발 출장 여부는 6~7차전에서 초미의 관심사였고 계속 주전 1루수로 기용되자 하라 감독의 독심에 찬사가 이어지기도 했으나 우승에 실패하면서 하라 감독과 이승엽에게 동시에 패인이 전가되는 형국이다.

그러나 하라 감독은 직접 이승엽을 탓하기보다 그를 기용한 자신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였다.

하라 감독은 8회 흔들리던 중간계투 오치 다이시케를 계속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도 “7차전만 따지면 계투진의 잘못이 아니



다. 3회 이후 단 한 명도 출루하지 못한 타자들에게 있다”고 타선 전체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하라 감독은 “요미우리는 내년에도 속세를 남겼다. 올해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역전 우승을 일구는 등 전체적으로 의의도 있었지만 일본 최정상 정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내년에 7년 만의 우승에 재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요미우리는 하라 감독에게 팀을 훌륭하게 재건한 공로를 높이 인정해 3년 계약약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라 감독과 2년간 요미우리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이승엽은 계속 신뢰관계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승엽이 내년 3월 열리는 월드베이스볼클래스(WBC)에 사실상 불참을 선언하면서 일본 대표팀 사령탑인 하라 감독과 태극마크를 단 이승엽의 사제 대결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세계선수권 2연패를 향해 “마린보이” 훈련 시작

한국 수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태환(19·단국대)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연패를 향해 물살을 다시 가르기 시작했다. 박태환은 10일 오후 태릉선수촌 수영장에서 노민상 경영대표팀 총감독의 지도 아래 1시간30분 가량 물 속 훈련을 했다. 박태환이 다시 도전할 무대는 내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다. 작년 세계선수권대회(호주 멜버른) 자유형 400m 금메달, 200m 동메달을 목에 건 박태환은 일단 400m 2연패가 목표다.

/연합뉴스

‘흑진주’ 비너스 시즌 3승 스페셜

WTA 소니 에릭슨챔피언십 우승

‘흑진주’ 비너스 윌리엄스(8위·미국)가 여자프로테니스(WTA) 2008 시즌 마지막 우승컵을 차지했다.

윌리엄스는 10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소니 에릭슨 챔피언십 대회 마지막 날 단식 결승에서 베라 즈보나레바(9위·러시아)에 2-1(6-5)·7-6(0-2) 역전승을 거두 우승 상금 134만 달러를 획득했다.

시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한 윌리엄스는 “매 포인트마다 어려운 경기였는데 이겨서 매우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000m 톱 10 실패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2008~200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차 대회 1,000m에서 나란히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남자 대표팀 ‘만형’ 이규혁(서울시청)은 10일(한국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자 1,0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1분10초16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15위에 그쳤다.

함께 출전한 모태범(한국체대)은 1분10초01로 12위에 올랐다.

또 여자부 1,000m 디비전A(1부리그)에 나선 이상화(한국체대)도 1분18초37로 12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WBC 선수단 구성 무조건 협조하겠다”

KBO 8개 구단 단장회의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월드베이스볼 클래스(WBC) 코칭스태프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프로야구 8개구단이 대표 선수 차출에는 무조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일성 KBO 사무총장은 10일 충북 충주 센트리얼골프장에서 열린 8개 구단 단장회의에 참석한 뒤 “8개구단 단장들이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에 대해선 아무런 조건없이 보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 총장은 “8개 구단이 선발선수에 대해서는 부상 여부와 관계없이, 또 팀에서 아무리 많은 선수가 뺏히더라도 일단 대표팀에 합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 총장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코칭스태프 구성방안에 대해선 좀 더 시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저녁 아시아시리즈가 열린 도쿄로 출국하는 하일성 총장은 “김인식 감독과 8개 구단을 최대한 설득해 무난한 코칭스태프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BO는 내년 3월 열리는 제2회 WBC를 앞두고 당초 한국시리즈를 2연패한 김성근 SK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추대할 예정이었으나 김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고사하자 지난 5일 기술위원회를 통해 김인식 한화 감독에게 전격 대표팀 지휘봉을 맡겼다.

그러나 김인식 감독은 자신이 지목된 6명이 코칭스태프에 합류해야만 사령탑을 맡겠다고 전체 조건을 내세웠으나 일부 해당 감독들이 거부해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표 후보선수 가운데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박찬호(LA 다저스)가 일찌감치 WBC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간판타자 이승엽(요미우리 자이언츠)마저 일본시리즈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뒤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국내 고참급 선수들의 대표팀 도미도 이탈마저 우려되자 KBO는 8개구단 단장회의를 통해 선수 차출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

/연합뉴스